



SUSTAINABLE CULTURE
AND ARCHITECTURE OF GWANGJU,
THE HONORABLE 12TH ANNIVERSARY !

<http://gjkira.kira.or.kr>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집과 어머니에 대한 단상



이동희 논설위원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odonghee@hanmail.net

- 1982-1985
영월공업고등학교 건축과
- 1986-1994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1994-1999
오이타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2000-2002
충주대·세명대·대원과학대 강사
- 2002-2005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2005-2021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0-2011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
- 2015-2016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8-2019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9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위원장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집행부위원장
- 2019-2021
고흥군 청년농촌주택조성사업 총괄계획가

2018년에 개봉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이장훈 감독)'를 다시 보면서 새삼 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비가 내리면 돌아오겠다"란 말을 남긴 채 죽은 엄마를 그리며,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며 굳세게 살아가는 한 가정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장맛비가 내리는 어느 날! 죽었던 엄마가 거짓말처럼 집으로 돌아와 꿀맛처럼 단란한 일상을 보내는 장면을 수채화처럼 잔잔하게 그려내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2005년 일본에서 개봉된 원작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에서도 아름다운 집 구석구석 풍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엄마가 아들 생일 때마다 예약해 둔 케이크가 도착하는 현관, 엄마가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부엌, 엄마의 일기장이 발견되는 창고, 엄마를 떠나보내는 정원(터널)...

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집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집은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와 계절 따라 바뀌 입을 옷과 어머니의 따뜻한 음식이 존재하는 곳이다. 또한 우리 삶의 베이스캠프이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곳이고, 떨어지더라도 잊을 수 없는 곳이며, 먼 훗날에도 또렷이 기억되는 장소이다. 그리고 집은 앞 영화에서 보듯 대체로 어머니가 있어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든다. 아마도 우리의 원초적인 집이 어머니 뱃속(아기집)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집'은 '궁가우주(宮家宇宙)'로 표현된다. 우리 인생은 소우주(小宇宙)인 어머니 배(宮)를 거쳐, 중우주(中宇宙)인 집(家)에서 살다가, 대우주(大宇宙)인 세계(宇宙)로 나가는 여정을 걷는다. 이때 '우(宇)'는 공간적 개념이고 '주(宙)'는 시간적 개념이므로, 집이란 곧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 함께하는 중간적 우주'임을 인식할 수 있다.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에 가면 '향단(香壇)'이란 고택이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회재 이언적이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지은 살림집이다. 원래는 99칸 규모였으나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소실되어 현재는 51칸만 남아 있다. 평면은 '한일(-)자'형 행랑채와 '날일(日)자'형 안채가 나란히 늘어선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 정중앙에는 어머니의 방(안방)이 위치하는데, 그곳에서는 뜨락과 마루와 부엌과 사랑방을 각각 건너다볼 수 있으며, 눈비와 바람 소리 그리고 음식 끓고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안채는 주로 여성이 머무는 공간으로서 그 인체(소우주)적 특성이 공간(중우주)적으로 확장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일찍이 국어국문학자 이어령 선생은 '미음(ㅁ)자'형의 안채가 '마누라', '마님', '엄마', '물(양수)'을 연상시킨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집은 자연재해나 동물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 장소의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또한 원시시대로부터 농경시대까지 여성이 더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었다. 남성이 바깥

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에 몰두할 적에, 여성은 안에서 양육과 가사를 담당해온 것에 기인한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생활태도를 살펴보면, 크게 자고(취침, 성애), 먹고(요리, 식사), 씻고(목욕, 세면), 싸고(대변, 소변), 입고(환의, 수선), 빨고(세탁, 건조), 쓸고(청소, 정돈), 넣고(수납, 저장), 보고(양육, 수발), 놀고(유희, 취미), 맞고(응접, 대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미리 계획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두뇌 연구 학자들에 따르면, 여성의 사고체계가 남성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한다. 남성은 어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여성은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특화돼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집의 효용성은 여성들이 있어야 더 극대화되는 듯하다.

1966년 필자가 태어난 '고향집'을 함께 자란 누나와 여동생들은 '엄마집'이라고 부른다. 모두가 타향으로 떠나버린 지금 그곳엔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월을 따라 비록 '우리집'이 '엄마집'이 되었으나, '우리'가 '엄마'로부터 나왔으므로 그 명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처음엔 엄마 품에 안기고 다음엔 엄마 집에 안긴다. 엄마가 곧 집이고 집이 곧 엄마인 셈인데 어느 쪽도 다 정겹고 따사롭다. 일전에 고향 집을 방문했더니 어머니는 반쯤 열린 마룻문을 통해 이따금 대문 쪽을 바라보셨다. 행여 동네 사람 누군가 마실을 와주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눈치였다. 골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신 후 외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종일 집에만 계시는 무료함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한 듯했다. 다음날 바로 사람을 수소문해 마루와 마당 사이에 경사로를 설치해 드렸더니,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문밖 출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칭할 때 '집사람'이라 하셨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우리는 '집밥'이라고 불렀다. 필자에게 있어 '집'과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동의어다. 모두가 자신을 편안하게 안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골의 오래된 집들 흙벽에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이 어린 시절 그려놓은 그림들이 더러 남아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각형 지붕을 한 '집'과 보글보글 파마머리를 한 '엄마' 그림이다. 아이들에게 있어, 집과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인식 대상이 아니었을까! 더불어 '집은 어머니 체취가 기록된 테이프 리코더'란 생각이 든다. 장독대, 부엌문, 찬장, 장롱, 화장대... 어머니 손길이 스친, 집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엔 정감이 어린다. 문득 오래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귀우(歸雨)'란 자작시 한편이 생각난다. "고향에 가서 / 빗소리를 들었네 / 가만히 누워 / 빗소리를 들었네 / 어머니 / 누워계시던 / 그 방바닥에서 / 아들 / 축축이 적시는 / 빗소리를 들었네."

건축문화 「사랑」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외 회원 일동

건축문화
사랑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 부문 대상 수상작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대한건축사협회

2021년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에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명예교수

- 지난 10월 2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에서 추대식 열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신정철)는 지난 10월 2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에서 올해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으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명예교수를 추대했다. 조용준 명예교수는 40년 가까이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건축인 양성에 앞장섰고, 광주광역시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 + 도시언어(누리예), 건축기획론(기문당), 도시건축의 경관창조(기문당), 일본의 경관계획(태림문화사), 창조농촌을 디자인하라(미세움), 축과 초점을 통한 역사 도시매력읽기(미세움), 도시재생 현장에 답이 있다(미세움), 프랑스 지방도시는 왜 활기가 넘치는가(미세움) 등의 역저서 출간은 물론, 신문 칼럼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 창달과 전파에 공헌을 하는 등 여러 공로가 인정되었다. 다음은 올해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 조용준 명예교수의 업적들을 사진으로 돌아봤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명예교수

조용준 교수, 삶의 이모저모



정년 퇴임

정년 퇴임식

정년 퇴임 기사



광주도시공사 사장

KBC 방송 출연

광주매일 사설



지난 10월 27일 열린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 추대식



일본도시주택학회 공로상 수상 소감

일본도시주택학회지



광주야구장 건립 추진위원장

광주야구장 준공식

야구장 건립계획 최종 보고

- 조선대학교 명예교수(현)
- 한국주거학회 고문(현)
- 대한건축사협회 명예 회원(현)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건축가(현)



특강

2011년 광주시의회 연찬회 특강(완도)

대한건축학회 특강(서울)



대한민국 경관대상 심사 위원장

대한민국 경관대상 심사 위원장

대한민국 경관대상 제1차 서류심사

- 조선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 일본 도쿄대학 연구원
- 일본 교토대학 초빙학자
- 광주도시공사 사장
- 한국주거학회 회장
- 중앙도시계획위원
- 대한민국 경관대상 심사위원장
- 한국농어촌 건축대전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추진위원장
- 광주야구장 건립 시민 추진위원장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추진위원장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개회사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상량식



토론회

한일 도시경관 세미나 좌장(서울)

한중일 문화도시 세미나 토론자(일본 요코하마)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김재록 의 회원연맹회

회장 최진태 의 회원연맹회

회장 석한수 의 회원연맹회

회장 김장섭 의 회원연맹회

회장 정인채 의 회원연맹회

회장 박태석 의 회원연맹회

회장 김원효 의 회원연맹회

회장 김승태 의 회원연맹회

회장 정내수 의 회원연맹회

회장 전영석 의 회원연맹회

회장 정운기 의 회원연맹회

회장 정광영 의 회원연맹회

회장 박진만 의 회원연맹회

회장 한형민 의 회원연맹회

회장 이재철 의 회원연맹회

회장 오공환 의 회원연맹회

회장 강봉유 의 회원연맹회

회장 특별자치도건축사회

나다움

노기송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WITH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4, 203호
Tel. 061-332-1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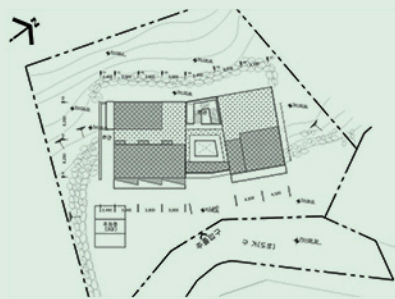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75-1 / 대지면적 : 1,654㎡ / 건축면적 : 225.84㎡ / 연면적 : 484.1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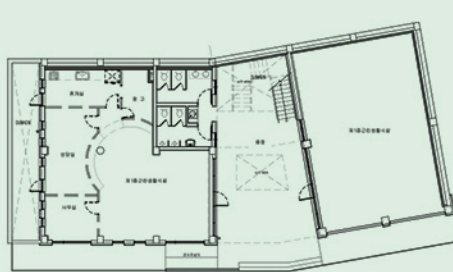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꿈꾸며...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안쪽에 위치한 사업 부지는 길에서의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주변 경관과 자연과의 관계에 따라 건축물의 위치를 잡고 매스를 구성하였다. 지하 1층 중앙의 비워진 마당은 빛과 바람의 통로로 자연과 건물을 잇는 중요한 축이 되고, 공간의 프로그램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앙의 오픈 계단을 오르면 한옥과 소나무 등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맞이하게 된다. 주변이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며 건축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층부에는 목재, 상층부에는 스타코를 마감재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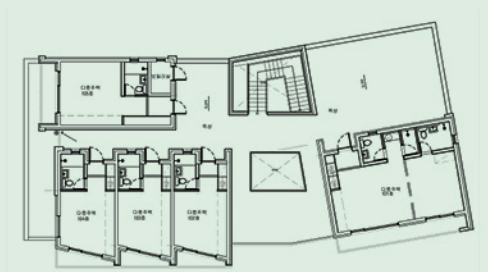
건축주는 자연재료를 전통 발효화하여 효소식품을 생산하며, 30년 넘게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강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고객들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다시 태어나는 삶’을 맞이하였으면 한다.



배치도



지하 1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한형민 예향 건축사사무소
- 전라남도건축사회 부회장 최세호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배종수 한려 건축사사무소
- 전라남도건축사회 이사 이경일 (유)원 건축사사무소
- 이학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초석
- 박종호 유민 건축사사무소
- 박미라 GA 건축사사무소
- 전라남도건축사회 감사 장인영 장인영 건축사사무소
- 강성민 이노 건축사사무소

-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 양인승 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주)
- 여수지역건축사회 회장 김동식 우주 건축사사무소
- 목포지역건축사회 회장 강성일 반석 건축사사무소
- 광양지역건축사회 회장 한만호 한성 건축사사무소
- 나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최세호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무안지역건축사회 회장 김재호 건축사사무소 휘람
- 장흥지역건축사회 회장 강인수 예담 건축사사무소
- 영암지역건축사회 회장 김도현 다보 건축사사무소
- 해남지역건축사회 회장 정용재 태진 건축사사무소
- 화순지역건축사회 회장 범정범 건축사사무소
- 장성지역건축사회 회장 최성수 건축사사무소 창
- 고흥지역건축사회 회장 정현구 정현구 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건축사회 한형민 회장과 임원, 지역건축사회 회장 그리고 회원 일동



전남건축사회, 2021년 건축사 실무교육 개최

지난 10월 1일 나주와 10월 8일 순천에서... 전문·윤리교육 진행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최근 2021년 건축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일, 전남 나주 에너지벨리 기업개발원 2층 중회의실과 10월 8일, 전남 순천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에서 전문교육 4시간 교육과 윤리교육 1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교육은 한국건축정책학회연구원 김의중 원장의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교육'과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응직 교수의 'BIPV 시스템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윤리교육은 광주여자대학교 교직원과정 김경화 부교수의 '마음 챙김과 감사'라는 주제로 열렸다.

해당 교육은 코로나 3단계 시행에 따라 교육수강인원을 각각 45명으로 제한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내년 실무교육에는 많은 회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

에너지 절감, 쾌적한 환경조성 인정...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기대

전라남도가 노후 공공시설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초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세종자치특별시, 광주광역시와 함께 우수지자체로 뽑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는 17개 광역 시도의 건물 에너지 부문 사용량, 절감량, 정책 이행도 등 6가지 종합지표를 평가해 선정했다. 주요 종합지표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건물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 등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도 자체사업인 옥상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녹색건축 지역 확산과 건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2022년 '제2차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50년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 신안 미술관 설계한다

전라남도·신안군 등과 자은도에 인피니토뮤지움 건립 업무협약



전라남도는 지난 11월 2일 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 세계적 조각가 박은선,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인피니토뮤지움(Infinito museum) 건립 업무협약을 했다.

인피니토뮤지움은 150억 원을 들여 신안 자은도 둔장해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미술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무한의 다리 등 자은도 일원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명소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역점 추진하는 신안 '1도(島) 1뮤지움' 아트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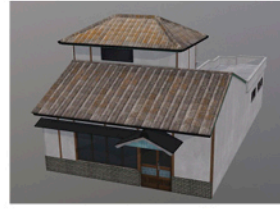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국내 삼성 미술관 리움과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설계했다. 프랑스 미디어 하우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설계 등 세계 5대 종교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계 거장이다. 웅장하고 고요하며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의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미술관 건립에 함께 참여한 목포 출신 박은선 작가는 29살에 이탈리아로 건너가 조각예술에 전념해 2018년 이탈리아 프라텔리 로셀리상(최고 조각상)을 수상하는 등 유럽에서 인정받는 조각가다. 고향에 돌아와 작품세계를 펼치고자 하는 그의 꿈을 마리오 보타가 돕기로 해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인피니토뮤지움'이 들어설 조각공원에는 박은선 작가의 조각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목포시, 근대문화자산 집대성 아카이브 구축 완료

11월부터 홈페이지에 근대건축 3D모델링 등 공개



목포시가 근대문화자산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인 '목포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인물, 역사, 문화, 유산 등 목포의 근대 자료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총 3개 사가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추진해온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발표했다.

아카이브는 11월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mokponet.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mokpo.go.kr/tou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목포 근대문화자산 기초조사부터 건축물 실측조사 및 3D모델링, 디지털 자료화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기초조사는 자료 수렴에만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시켰다. 목포 근대에 관한 인문학적 자료, 고사진, 고지도, 신문기사, 건축물 등 연관된 모든 자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극작가 김우진을 검색하면 가족 관계, 작품 활동, 연인 윤심덕 등을 고증하는 사료들이 함께 제공된다.

이와 함께 보존상태가 우수한 목포 근대 건축물들은 실측을 통해 3D모델로 제작하고, 이를 3D지도에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디지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방문하지 않고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또 목포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은 물론 관리자와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 변화상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시, 선소유적지에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본격화

지난 9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마치고, 10월에 건축 및 전시 설계 용역 착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한 선소 유적지 내에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0월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2022년 발주를 목표로 설계공모를 통해 올해 9월 당선작(주)삼정 건축사사무소/이형호 건축사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이주경 건축사)

선정을 마치고, 10월 13일 건축(기본·실시) 및 전시(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선소테마정원은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선소 유적지 내에 선소테마영상전시관을 포함한 테마길(탐방로) 등이 들어서 역사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된다.

국·도비 73억을 포함한 195억 원이 투입되며, 전시관 등과 연결되는 테마길(탐방로)이 조성돼 역사성을 살리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선소테마영상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00㎡ 규모로 선소의 기록, 역사, 선박의 구조 등을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의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위치한 여수 진남관과 더불어 신도심에 위치한 여수 선소 유적을 테마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문화관광자원 체험기회를 제공해 관광객 분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소유적지는 충무공과 지역민들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적 공간으로 1995년 4월 20일 국가사적 제392호로 지정됐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김형용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영 / 전남 무안군 삼함읍 대죽서로16번길 27, 501호
 - 박은비 건축사 / 가로 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방동길 11, 1층
- **결혼**
 - 박종경 건축사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10월 23일(토)
 - 한갑수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한건축 / 자녀 결혼 - 10월 30일(토)
- **부고**
 - 신승민 건축사 / SM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0월 11일(월)

부안 보안면청사

김남중 건축사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54
Tel. 063-274-3647



대지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390-2 외 2필지 / 대지면적 : 4,272㎡ / 건축면적 : 799.22㎡ / 연면적 : 799.22㎡ / 건폐율 : 18.71%
용적률 : 20.48%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전라북도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열려

지난 10월 19일 한국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막하고 5일간 진행... 온라인은 진행 중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온라인 전시장 QR코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돌을 맞이한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지난 10월 19일 개막하고 10월 24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 등 대중이 모이는 대면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오프라인 전시로만 관람객을 맞이했다.

올해 주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문화의 하나인 건축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자라는 의미의 '건축! 문화로 시대를 열다'이다.

건축문화제 전시에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 46점, 한·중·일 건축사들의 우수작품, 서울시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 공공건축 작품전, 전통건축 한옥모형 기획전시, 건축드로잉 작품 등이 전시됐다.

개막식 오프닝 행사에는 공공 분야 대상을 차지한 '전주 새솔유치원'을 비롯한 4개의 작품과 일반 분야 대상 '카페 캔버스'를 비롯한 7개 작품에 대해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각각 도지사 상장이 주어졌다.

아울러, '학생 부문' 대상을 차지한 '흔적은 거리를 통해서', 금상 '짜보선창, 현재의 노를 젓다' 등 27개 작품에 대하여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특히 이번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건축인은 물론 일반인도 쉽게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복원 과정을 담은 영상도 방송사 등의 협조를 받아 행사 기간 중 상영됐다.

작품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장 전북대학교 소승영 교수는 "건축문화제 열기가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작품 수준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진 건축가들의 명실공히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 박진만 회장은 "이번 축제는 전라북도민들의 요구에 함께 공감하고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행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 임원과 건축문화상 수상자 등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지난 10월 19일 착수보고회 개최, 한옥 등 건축자산 전문 발굴



전라북도가 근대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전라북도는 도내 건축자산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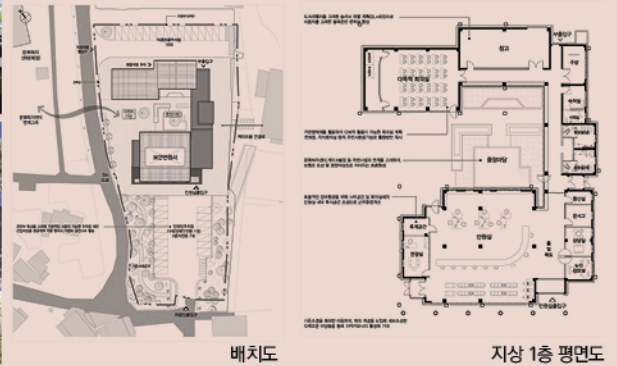
건축! 문화로 시대를 열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라북도건축사회!!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건축을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건축전문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외 회원 일동



보안면청사는 기존 면청사 위치에 다시 자리 잡아 쾌적한 복지와 다양한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의 사랑방이다. 건물은 전통공간의 마당과 같이 다양한 일상을 담고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는 위요된 공간을 품고 있다. 대지에는 변화와 함께 주민들과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굳건하다. 청사는 지역 대표 건축물로서 상징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주민에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로서의 상징이 되는 “일상이 함께하는 청사”이다. 입면은 문화재인 유천서원이 가진 한옥의 선형을 형상화하고, 지역 활력의 흐름을 부여해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내년 9월 완료 예정인 이번 용역은 전라북도 전역에 대한 건축자산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이를 토대로 ‘한옥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 5개년 계획에는 건축자산 목록 구축,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시행 계획 로드맵 수립, 우수 건축자산의 지정 및 관리, 전라북도 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한옥의 가치등급 설정, 전라북도의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분석과 건축자산 보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기게 된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발굴·보전해온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은 물론 근·현대 건축물과 공원·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 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도 ‘보존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Active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건축자산 정책 수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과업 초기단계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위주의 자산발굴과 실천과제 수립의 적정성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건축자산 정책이 마련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빈집 터, 신축 사회주택 된다

전주시, 내년 7월까지 덕진구 팔복동에 ‘전주형 사회주택’ 10호 신규 공급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팔복동 빈집밀집구역에 4층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민간 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내년 7월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덕진구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지구에 ‘전주형 사회주택’ 1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주거모델이다.

팔복동 사회주택의 경우에는 그간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입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주택을 신축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음 추진된다.

사회주택은 지상 4층, 연면적 730㎡ 규모로, 주거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으로 건립된다. 시는 합리적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편리한 동선을 구성하는 한편 방범과 방재성을 갖추면서도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입주인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제공해 공동체 주거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주력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건축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착공해 내년 7월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동완산동 청년 쉼어하우스 5가구’, ‘팔복동 계

충통합형 주택 10가구’, ‘중화산동 여성안심 사회주택 15가구’, ‘효자동 청년 주택 30가구’, ‘삼천동 마을공동체 연계형 주택 3가구’, ‘서서학동 청년예술인 주택 18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총 81가구를 청년,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해왔다.

전북건축사회 골프동호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지난 11월 4일 김제 스파힐스CC에서... 회원 50여 명 참석



전북건축사회 골프동호회(회장 전병갑)가 지난 11월 4일 김제 스파힐스CC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동호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건축사회 박진만 회장은 이날 대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로 회원 여러분들 모두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대회가 회원 상호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북 회원동성

•입회

- 박종환 건축사 / 늘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33, 3층
- 문창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 전북 군산시 상신4길 21-2, B1

•변경(사무소명&소재지)

- 오경택 건축사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탄로 38, 3층

•변경(소재지)

- 송은정 건축사 / 이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고리3길 2, 1층
- 유창수 건축사 / 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정3길 117, 2층
- 임준순 건축사 / 쉼키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5, 503호
-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78, 201호
- 김현철, 이성영 건축사 /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0, 1-3층

•결혼

- 엄황섭 건축사 / 엄 건축사사무소 / 장녀 - 11월 06일(토)
- 엄 지 건축사 / UM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11월 06일(토)
- 김종용 건축사 / 건원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11월 20일(토)

•부고

- 조두석 건축사 / 극동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0월 09일(토)
- 김현수 건축사 / 현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0월 17일(일)
- 이승권 건축사 / 미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0월 25일(월)



우치공원 해양동물사
 정태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광주 북구 무등로 25 / Tel. 062-512-8043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생요동 90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183,460㎡ / 건축면적 : 596.89㎡ / 연면적 : 689.9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해양동물사)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청서 열려
 지난 10월 27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막식 가져... 온라인 전시 12월 31일까지



광주 지역의 건축 흐름과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지난 10월 27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막하고 4일간 전시가 진행됐다.

첫날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광주시 건축상을 비롯 각종 공모전 수상작과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상 등의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가 함께 진행되는데 온라인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s://gfauc.gjfika.org/>)에 접속하면 관람할 수 있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는 이 지역 건축사, 건축 관련 교수 등 건축인들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건축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건축도시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는 행사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인채),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김종원),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오세규)가 지원하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신정철)가 주관한다.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제23회 미술전 광주 북구청에서 개최
 지난 11월 1일 개막, 11월 12일까지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전시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회장 이경탁)가 지난 11월 1일 광주 북구청 갤러리에서 '제23회 미술전'을 개막하고 오는 11월 12일까지 전시를 진행한다.

개막식에는 북구청 문인 구청장과 비롯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

장과 미술동호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인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구민들에게 훌륭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축사 미술동호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인채 회장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지쳐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는 전시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는 이번 전시회에 미술작품 30여 점을 전시했다.

조선이공대학 건축과와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학생작품전 열어
 11월 2일 조선이공대, 11월 4일 호남대 개최... 정인채 회장 참석

조선이공대학 건축과와 호남대학교 건축학과가 학생작품전을 11월 개최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조선이공대학 건축과는 전일빌딩에서 제47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전시회를 진행했다.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 2022 출시기념 프로모션

프로모션 기간
 2021. 11. 1 ~ 11. 19

전화문의 | 1899-9260 홈페이지 | www.midasCAD.com

반값 할인 받고 갤럭시워치4, LG퓨리케어 까지!



프로모션 내용확인



갤럭시 워치 4 (44mm/Wifi 모델)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AS281DWFC





해양동물사는 물범, 물개, 수달 등 수중 동물을 위한 동물원이다. 외형상은 자연 일부처럼 드러나지 않는 동물과 인간의 만남의 공간이다. 궁극적으로 안은 채 동굴 속을 들어가듯 어두운 입구 공간을 지나면 지하 선긋 공간을 마주하듯 또는 영화관 스크린을 마주하듯 대형 수족관과 마주치게 된다.

유리 벽 하나로 물범과 어린이는 서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주 보며 환성을 지른다. 서로 손을 잡을 듯 유리에 다가서지만 마주할 최단의 거리는 유리 벽 두께 35mm이다. 환성을 지르는 어린 애 환호하듯 물범은 능숙한 수영 솜씨를 보여준다. 관람객 통로는 어두운 공간이다. 반면에 야외 수족관은 동물 공간으로 하늘이 뚫린 Open 공간이다. 관람객은 동물을 볼 수 있지만, 동물들은 어두운 관람 통로의 관람객을 자세히는 볼 수 없다. 관람객이 떠나고 나면 문명과 격리된 자연의 세계에 동물들은 남겨지게 된다. 간혹 하늘을 나는 새만이 보일 뿐이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갇힌 공간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먹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는 찬성의 관점은,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과 어린이 및 관람객에게 생태 관련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의 관점은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공간이며, 동물들은 갇힌 공간에서 스트레스로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여 동물들의 참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고 주장한다. 언제부터인가 동물들은 인간과 함께하였다. 핵가족의 시대에 더욱 동물들은 동물이 아닌 가족이 되었다. 어차피 동물과 함께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공존의 공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동물들이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작은 동물시설물에 대하여 최대한 자연과 가깝고, 안전하며,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늘색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그림자는 더욱 길어만 갈 때쯤 동물원 내 안내방송에서 "이제는 동물도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관람객께서는 6시까지 동물원에서 떠나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조선이공대 건축과 졸업작품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작품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도 지난 11월 4일 교내 창조관에서 제31회 건축전시회를 개최하고 4학년 졸업작품을 비롯하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의 작품도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 광주건축사회 정인재 회장은 두 행사 모두 참석하여 격려와 함께 시상 및 축사, 테이프 커팅을 했다.

광주건축사회, 2021년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비주거 부문 4점, 주거 3점 선정...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상 및 전시



비주거 금상 '첨단 와이어즈파크지식산업센터'



주거 부문 금상 '220'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 15일 올해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하며, 각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 비주거 부문 공모작 북구 오룡동 '첨단 와이어즈파크 지식산업센터'와 주거 부문 공모작 봉선동 다가구주택 '22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는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공모해 건축사, 대학교수 등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 안길전 건축사/(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심사를 거쳐 비주거 부문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과 주거 부문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1점 등 총 7개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작 명단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24599번을 참고하면 된다.

나무심는건축인, 남구 분적산서 기념식수 행사 통해 제4기 공식 출범

지난 10월 22일 광주 남구 분적산 근린공원에서 배롱나무 50그루 심어

나무심는건축인(상임대표 박홍근/이하 나심건)은 지난 10월 22일 광주 남구 노대동 분적산 근린공원에서 4기 출범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청 김병내 구청장과 광주건축사회 정인재 회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신정철 회장, 광주전남건축가회 길종원 회장, 나심건 박홍근 상임대표, 나심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린공원 일대에 배롱나무 50그루를 심었다.

나심건은 지난 1999년 생활 속 공간을 꿈꾸는 건축인들이 만든 단체로 '나무를 심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고 있다.

출범식을 가진 박홍근 제4기 나심건 상임대표는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건축문화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장기섭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온도 / 광주 북구 태봉로 87, 4층 401호
- 손미애 건축사 / 예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101동 1308호

• **변경(사무소 개설)**

- 양동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현 / 광주 남구 봉선로84번길 3, 306호
- 신정철 건축사 / 디에이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1704호

• **변경(사무소명)**

- 문고리 건축사 / AUD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AUD

• **변경(소재지)**

- 김선수 건축사 / 제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B동 2015호
- 유승희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4동 212호

• **결혼**

- 한진수 건축사 / (주)토방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10월 31일(일)
- 정순중 건축사 / (주)예광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11월 06일(토)

• **부고**

- 위태준 건축사 / 가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10월 11일(월)
- 임이기 건축사 / 푸른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0월 27일(수)
- 노진욱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 빙모상 - 10월 28일(목)

※ **정정합니다.**

10월 변경(소재지) 흥봉기 건축사 사무소명 중 '안 건축사사무소'를 → '삼우 건축사사무소'로 정정합니다.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 **시상목적** :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시상하여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건축저변 확대와 광주지역 우수 건축 장려를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책을 제고하기 위함.
-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함.
- ◎ **응모기간** : 2021. 9. 6. (월) ~ 9. 24. (금) 18:0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0-25 / 건축면적 : 7,295.95㎡ / 연면적 : 74,629.46㎡ / 건폐율 : 64.39% / 용적률 : 479.83%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2층
주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비주거 부문 금상 ‘침단 와이어스파크 지식산업센터’

설계자 : 이상포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시공자 : 강삼규 대표 / (주)중해건설

광주 와이어스파크는 광주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이다. 저층부에는 입주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거 행정 산업 대단지인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인 와이어스파크몰과 상업시설을 따라 주변 산책로를 있는 공원 속 문화광장을 조성하였다. 중층부와 상층부는 중소기업에 위한 최적의 면적설계가 적용된 업무시설로 2개의 타워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 1. 1층
- 2. 2층
- 3. 지상주차장
- 4. 지상주차장
- 5. 공개공지

- 1. 1층
- 2. 지상주차장
- 3. 지상주차장
- 4. 지상주차장

- ◎ 시상 구분 : ■ 주 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비주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 수여 내용 : 설계자 ⇒ 상패 및 상금 / 시공자 ⇒ 상패 / 건축주 ⇒ 건축물에 동판 부착
- 금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1,000,000원]
 - 은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400,000원]
 - 동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200,000원]
- ◎ 응모 작품 : 12점(비주거 9점, 주거 3점)

◎ 심사위원 : 7인

소속	성명
광주건축사회(당연직 위원장)	안길전 건축사 / 일우 건축
광주건축사회(위원)	박신남 건축사 / 유림 건축
광주시 건축주택과(위원)	임동범 과장
광주전남건축가회(위원)	정영석 건축사 / 금성 건축
광주전남건축가회(위원)	윤대한 교수 / 광주대
광주전남건축학회(위원)	정윤남 교수 / 전남대
광주전남건축학회(위원)	송성욱 교수 / 순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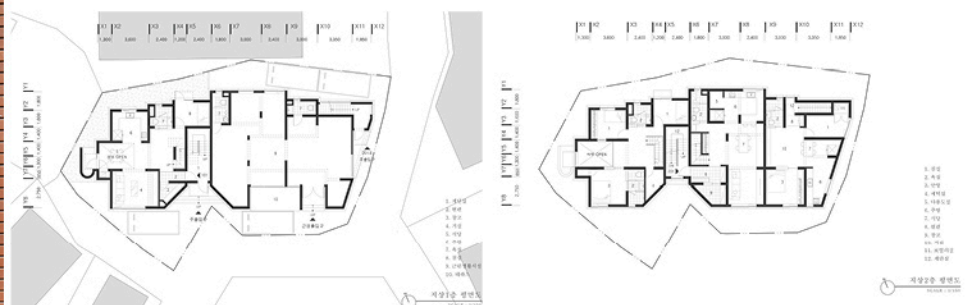
주거 부문 금상 '220'

설계자 : 조경빈 건축사 /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하광수 대표 / 우리마을에이엔씨(주)

도시계획에 의한 격자형 도로망이 아니어서인지 집터의 모양은 그간의 개개인의 이해 관계 때문인지 분필된 모습은 날카롭다. 주변 건축물의 외장재는 특정되지 않은 돌, 타일, 벽돌, 드라이핏 등 다양한 재료가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주변은 관리가 되지 않아 세월의 얼룩이 그대로 묻어있지만 새로 착공을 해 지어지는 건축물의 외장재보다 무게감이 더 느껴진다.

건축물은 '대영빌라'라는 명으로 2002년에 준공된 다세대주택이다. 8세대의 평균면적은 65.00㎡로 전체 연면적에 최대한 합리적인 세대수를 확보하려는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면적과 세대수를 확보한 빌라는 합리적인 타당성은 검토되었으나 사는 세입자의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이 건축물을 계획함에 있어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며 수선하여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공간을 개인만이 아닌 공동이 공간을 다 같이 향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본다.

일률적으로 계획되었던 세대의 평면은 갈 수 없고 세대별 공간의 특징에 따라 평면의 계획은 다양해졌다. 그로 인해 일률적이었던 평면은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은 입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오래된 건축물을 재해석한다는 건 제약도 있지만 그 건축물의 역사를 해석하고 또 다시 우리의 해석이 재해석되길 기대해본다.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 **시상목적**: 전라북도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함.
 - ◎ **공모대상**: ○ 사용승인 부문 [공공 / 일반(주거·비주거·한옥)]
 - 전라북도 내에 건축된 건축물 중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
 - 전라북도 외 지역의 건축물로서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작품
- 1) 공공 분야: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인 건축물



대지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암1길 24 / 대지면적: 5,007㎡ / 건축면적: 2,048.06㎡ / 연면적: 2,940.87㎡ / 규모: 지상 2층 /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주요 마감: 영롱살기, 폴리카보네이트복층판, 적삼목

대상(사용승인 공공 분야) '전주 새솔 유치원'

설계자: 유영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엄마의 품처럼 안전하게 보호되는 중심 마당을 가지도록 계획하여 외부환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열린 '모'자 형태를 띠고 있다. 주출입구 부근에 행정 영역을 배치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연적인 감시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존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한 유치원 설계로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이 담기도록 설계하였다. 본래 땅의 성질을 최소화하여 1층과 2층에서 진입이 가능한 동시에 유치원 내부에도 자연스럽게 생긴 경사로를 인위적으로 해치지 않도록 하였다. 비탈진 곳 자체로 언덕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아이들의 동선이 자연과 맞닿았다. 이곳은 다양한 놀이 학습이 이뤄지며 아이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2) 일반 분야 : 민간 건축물 ※ 리모델링(대수선 허가·신고) 포함
 - 주거 :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 건축물
 - 비주거 : 주거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한옥 : 한옥구조 건축물

◎ 접수기간 : 2021. 9. 28.(화) ~ 9. 29.(수), 09:00 ~ 18:00

◎ 수여 내용 :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부차용 기념동판

◎ 심사위원 : 9인

소속	성명	소속	성명
도의회	오평근 의원	전북건축사회	이행옥 건축사
전북대	소승영 교수	전북건축사회	정창석 건축사
군산대	송석기 교수	한국사진협회	황양운
원광대	노준석 교수	(전)전북도청	김종혁
전주대	함성일 교수	-	-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523-5 / 대지면적 : 1,749.00㎡ / 건축면적 : 313.56㎡ / 연면적 : 996.59㎡ / 건폐율 : 17.92% / 용적률 : 37.79%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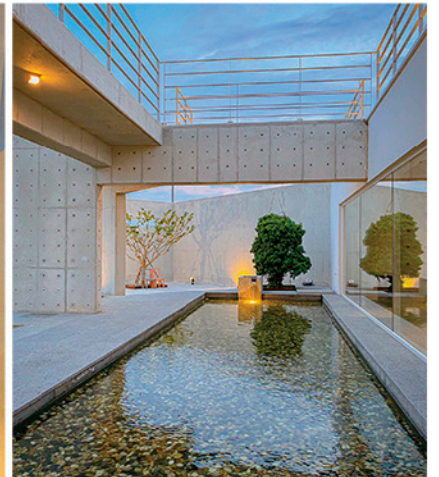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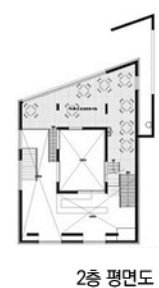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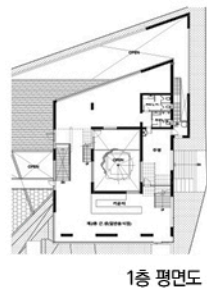
대상(사용승인 일반 분야) '카페 캔버스'

설계자 : 김종왕 건축사 / 담 건축사사무소

이용자들은 열린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서로 다른 공간을 바라보며 각자의 이야기를 만든다. 각층의 동선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계단은 변화하며 공감을 자아낼 것이다. 내부는 채움보단 비움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채워지며 해 질 무렵 건물을 물들이는 노을은 항상 다른 그림으로 캔버스를 칠하며 하루를 사색하게 한다.

컨소시엄한 아이엠아키텍츠와 고민한 형태를 위해 구조는 평범하지 않았고, 단지 시공의 난이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도한 모든 것이 구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던 중정은 연리지(連理枝)로써 완성되었다.



사랑에서 _ 여든세 번째

나무학교

나뭇잎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각양각색의 단풍이 초록 잎 사이로 파고들고 있다. 곧 한해가 지나가는 가을이다. 단풍나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 몸의 일부인 잎을 물들게 하여 떨어뜨리는데 인간들은 물든 단풍을 아름답다며 즐긴다. 나무에게는 생존의 몸부림이 인간에게는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보고 판단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

나무는 내년 봄, 새로운 잎을 세상에 선보일 것이다. 자신이 살아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나이를 표 내지 않으면서 더 화려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매년 나이를 먹지만 매년 새롭게 태어나는 나무다.

사람들도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다. 겉으로 표가 난다. 행동으로, 말로, 생김새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노래한 시가 있다. 문정희(1947~) 시인의 <나무학교>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나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이를 몸속 나이테에 새기며 해마다 울창해지는 나무를 통해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나이 들어도 울창해지는 나무, 표를 내지 않는 나무,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는 나무,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는 시인의 노래처럼 나도 그리하고 싶다.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도 그리 마음을 먹어본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나이를 세고 의식하고 있다. 정년이니, 환갑이니, 노후생활이니, 노년의 건강이니, 인생의 마무리 등등. 그래 난 사람이야 나무가 아니지, 나를 합리화한다. 자연이 주는 지혜, 나무가 주는 삶의 방법을 곧장 잊어버린다. 움직임이 자유롭고, 생각할 줄 알고, 말하며 표정관리를 해야 하는 인간이기에, 뭐 그런 거지하며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변명도 해본다. 아직도 부족해 배울 것이 많음을 또다시 깨닫게 된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은 '나무학교'에서 배우기로 했다. 삶의 태도를 배우기로 했다. 나이를 속에 새기고 겉으로 표 내지 않으면서 어른이며, 매년 새롭게 또 시작하여 더 풍성한 나뭇잎과 푸르름을 간직할 줄 아는 나무의 삶에서 교훈을 배우기로 했다.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사 Q&A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제 2021-119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고시(2021. 11. 02.) 하였다.

8개의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이다.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입되었고,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2023년부터는 공공 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확대(500㎡ 이상) 되고, 2025년부터는 민간에도 의무화가 도입(1,000㎡ 이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한국에너지공단 1개소에서 인증을 처리하다보니 인증기간이 오래 걸려 민원의 발생이 많았는데 이의 해결이 예상된다.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소이앤씨(주)

www.bs-base.co.kr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지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마이크로파일 · 팽이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민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광송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청 131-009-471898(광주건축사회)
대광판별 35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최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가현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광고 및 구독신청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응력 크기, 진동 크기에 따른 CASE별 시공순서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관내(광주, 전남, 전북)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문의전화 1666-5123

책 소개 _ 진다엘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구마 겐고, 건축을 말하다

구마 겐고 저 / 이정환 역 / 나무생각 / 2021. 06. 21.

이 책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구마 겐고'가 저술한 책으로 그의 건축 철학의 뿌리이자 토대가 된 장소에 대한 깊은 사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건축 철학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구마 겐고는 "사람은 자신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가는 더욱 '장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눈앞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사건들 너머에 조용히 존재하는 '장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그는 건축에 있어 '장소'라는 의미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설계하고 시공하며 보고 느낀 점, 또한 그 공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장소, 재료, 사회적 관계 등에 연관을 지어 5가지의 주제로 묵묵히 전달한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의 장소'이다. 저자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시작으로 직접 경험한 장소에 대한 흥미와 집중할 요소에 대해 알아간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건축 가치관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되어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재료와 형태, 그리고 관계'이다. 자신의 시공 및 설계 경험담을 통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공간적 특성과 의미를 극대화했는지, 또는 주변 환경이나 인간, 사회적 상황에 따른 건축공간의 관계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디자인의 기본은 거부권이다.'이다. 어린 나이에 경험한 독특한 건축물에 의해 자신의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디자인의 거부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음에 든다'라는 감정은 창조적이지 않으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 새로운 것, 지금까지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탄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네 번째 주제는 '드러나지 않는 건축'이다. 형태나 디자인뿐만이 아닌 자신이 접하게 된 종교와 관념, 시대적인 사고 등을 통해 건축적인 공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나는 작은 것을 추구한다.'이다. 자신이 건축을 공부하면서 확립되어 가는 가치관과 건축물 자체가 아닌 내부적이고 사소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를 자신의 건축 가치관 성장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어떠한 정보를 얻는다고 보단, 저자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요소별로 하나씩 담담히 서술했기 때문에 직업성을 가진 단순한 건축가로서가 아닌 그가 건축으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장소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건축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소에서 나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나는 자신의 전공 가치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깨워주는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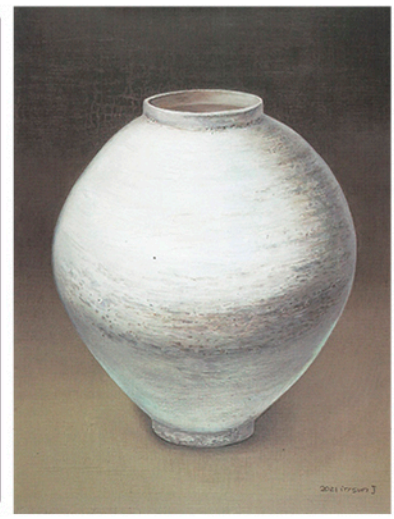


건축사 만평

이경탁 건축사 작
프라임 건축사사무소(광주)/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정인순 건축사 작
건축사사무소 휘건이엔지(광주)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달 항아리'
2021 Oil on Canvas 53cm×41cm

법무법인 가현
www.welaw.co.kr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85번길 11-9
T . 062-236-0222
F . 062-236-0608
M . 010-3000-6028
E . choi092@hanmail.net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국사법학회 감사
-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EPS 준불연 단열재

DK | 주디케이보드 ×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적합
2021년 2월
개정 건축법

준불연 EPS 단열재
DK본 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DK | 주대 광 판 벨 | 주디케이보드 | 고객센터 1855-2240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강동영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라움 광주 서구 화정로 268, 3층 T. 062-385-0755 / F. 062-385-0355	강형선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광주 서구 화정로 293, 4층 T. 062-351-7400 / F. 062-369-6745	길종일·오금열 건축사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장동로 41, 4층 T. 062-222-0210 / F. 062-222-0230	김기준 건축사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골든빌 310호 T. 062-384-3533 / F. 062-384-3534
김도석 건축사 미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칠성로43번길 5, 3층 T. 062-434-1532 / F. 062-382-1532	김익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울림 광주 광산구 신창로72번길 22, 4층 403호 T. 062-961-2331 / F. 062-961-2335	김준철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광주 서구 상무대로 721, 4층 401호 T. 062-385-0320 / F. 062-384-0325	박신남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유림 광주 서구 월산로 228, 2층 T. 062-512-2540 / F. 062-382-2540
유승희 건축사 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4동 212호 T. 010-4605-2418 / F. 062-603-0455	윤형근 건축사 미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3번길 7-1, 3층 T. 062-383-2412 / F. 062-383-2413	이영문 건축사 이영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독립로 149, 양정빌딩 2층 2호 T. 062-515-0432 / F. 062-515-0436	이왕범 건축사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일로24번길 21, 2층 T. 062-361-0611 / F. 062-381-0612
이혜란 건축사 나래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65, 3층 T. 062-529-6171 / F. 062-529-6173	임채열 건축사 나성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독립로367번길 73 T. 062-529-2300 / F. 062-529-0108	장동원 건축사 동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백서로 167 T. 062-224-0060 / F. 062-224-0061	정명환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지웃 광주 서구 마루로 67, 3층 T. 062-375-2800 / F. 062-375-7100
정재한 건축사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302호 T. 062-962-8267 / F. 062-962-8107	진수성 건축사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신창로 105, 5층 T. 062-672-2230 / F. 062-672-2232	최진화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현산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5동 205호 T. 062-603-0178 / F. 062-603-0179	한형민 건축사 예향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봉화1길 21 T. 061-723-8601 / F. 061-723-8602

해송 종합건축사사무소 나주 대호동 단독주택
 대표 강기석 건축사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번길 29-64 / T. 062-952-3691 / F. 062-952-3693

(주)홍 건축사사무소 광주 쌍암동 다운타운 시너지
 대표 박재홍 건축사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89 상무구영드림빌 408호 / T. 062-375-6282-3 / F. 062-375-6284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전 오류동 골드클래스
 대표 안길전 건축사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 T. 062-233-7151~2 / F. 062-233-7153

일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유동 요양병원
 대표 김선영 건축사



건축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개발사업컨설팅
 광주 서구 통암순환로128번길 63, 2층 / T. 062-367-7151 / F. 062-367-7153 / 3677151@hanmail.net

“사람과 자연 그리고 건축이 상호 공존하는 공간환경을 생각합니다.”



남구 지석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월산동 현대지역주택조합아파트



남악 신도시 펠리시티5차 주상복합아파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대표 건축사